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여당당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어려웠던 시절 회상하며 더불어 사는 삶 실천”

실의에 빠진 남편 복돋아 재기 성공 이영숙씨

“지금 남편과 함께하는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토성면 봉포리에서 남편과 단 둘이서 슈퍼를 운영하며 24시간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한다는 이영숙씨(43세, 사진)는 오늘도 밝은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다.

항상 밝은 표정이라 그의 삶에서 어두운 그늘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영숙씨도 오늘을 있게 해 준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

토성면 천진리가 고향인 그녀는 1994년 남편 김태극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비교적 넉넉한 살림의 남편과 결혼해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결혼 이후 남편과 함께 간성에서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3년간 노래방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아 고스란히 거액의 돈을 날렸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가 가장 힘들었

던 것 같아요. 2살배기 간난 아기를 업고 남편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했었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해 결혼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씨는 이후 집을 팔아 월세로 옮기고 소액의 자금으로 천진에서 치킨집을 시작했다. 실의에 빠져있던 남편을 복돋아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씨의 격려에 힘을 얻은 남편은 치킨배달을, 이씨는 주방을 맡아 24시간 영업을 하며 악착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게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닭을 튀길 정도였다.

이렇게 악착같은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이씨는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을 회상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리보며 틈틈이 이웃을 도왔다.

이웃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치킨을 함께 나누는 등의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남편과 함께 밤낮없이 치킨집을 운영하

면서 힘은 좀 들었지만, 쓸쓸하게 돈 버는 재미와 더불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씨는 4년간의 치킨집 운영을 마치고 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천진해변에서 두달간 식당 운영을 이어갔다.

“해변에서 두달간의 식당운영이 4년간의 치킨집 운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팽벌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웠는데, 동네 주민들이 많은 보탬을 줘 힘이 무척 됐었지요.”

이씨는 “이런 힘들었던 경험들이 용기를 주었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조금 쉴 만도 했던 이씨는 그 해 겨울 봉포에서 닭갈비집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4년간 열심히 생업을 이어갔다.

이씨는 닭갈비집을 운영했을 때도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 무료로 식사 대접을 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갔다. 이씨의 이웃사



랑실천이 소문으로 퍼져 주민들의 추천으로 군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했던 이씨는 결국 봉포에 집을 장만하고 지금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슈퍼를 운영하면서도 천진에 있는 공부방에 한달에 한번 간식과 케익을 제공하고 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신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 쑥스럽다”고 말하는 이씨는 남편과 1남 1녀를 두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원광연 기자

“어머니의 정체성 회복”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 어머니 교실’ 운영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배우자와 자녀들간의 관계증진을 도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복한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어머니 교실은 지난 3일 첫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동안 죽왕면 주민자치위원회(죽왕면사무소 2층)에서 오후초등학교 어머니 17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11월 3일 부모됨의 역할, 10일 효과적인 대화법, 17일 삶에서 공부의 의미, 24일 좋은 부모 되기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명희 강릉지

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전문강사가 초청강사로 나와 강의한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복한 어머니 교실운영으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녀에 대한 이해로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자녀와 소통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아이돌보미사업 등 교육 및 상담, 돌봄 사업을 펼치는 등 건강한 가정문화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광호 기자

여성단체 탐방 6

4개 아동센터 지원 · 독거노인 방문목욕

늘사랑회

거진읍에 소재한 고성노인복지센터 종사자로 구성된 늘사랑회(회장 함은희, 사진)는 32명의 회원으로 2008년 설립됐다.

늘사랑회 회원들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달에 1만원씩의 자비를 모아서 고성지역의 노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성지역 4개 아동센터 지원과 장애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을 차량으로 이동해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강원도 자원봉사 릴레이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늘사랑회 회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다.

함은희 회장은 “회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된다”며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과 일심동체해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함은희 늘사랑회 회장